은 혜 한 인 교 회

2020년 7월 12일 | 선교사 현황 | 58개국 344명 | 자체파송71%

선교지의 COVID-19를 위한 기도

최윤섭
COVID 19에서 회복되셨고, 현재 요양 중이 십니다.

정소남
현재 정소남 선교사님은 미국에 거주하시며, 하바롭스크 은혜 교회에 교인 중에 확진자가 2명 그리고 폐렴환자 4명이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형민
폐 CT 사진을 찍었는 폐렴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

1. 저와 저희 가족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사모 이혜영 선생님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베OO듀즈 평안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되었지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베OO듀즈 평안교회와 청년과 청소년들을 지도할 영적 멘토가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Y국 한OO 김OO

1. 개척교회 장소를 주시옵소서!
2. 복음전파를 위해 현지 목회자와 한마음 한 뜻 되게 하소서
3. 직원인 딱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4. 신입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5. 협력 교회 와도 계속 좋은 관계에 있도록
6. 학원 운영을 위해

탄자니아 송규영

1. 성령충만 하도록
2.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슬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3.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4. 에버그린 학교 건물 렌트비와 선생님들 봉급 및 학교 운영비를 위해
5. 성경대학 학생들이 하루에 말씀 10장씩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6. 키딤니 학교 책걸상 및 비품 구입, 조경공사, 그네, 전기, 수도공사 등 필요한 재정 공급과 믿음으로 가르칠 교사를 보내주시기를 또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7.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프리카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8.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 하시기를
9.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들이 잘 견디고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10. 저희 부부의 건강 (오: 치과치료, 송: 고관절 통증)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N국 남OO

1.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2. 학생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3. 학부모들과 동네 사람들의 안정적인 직장과 일자리를 위하여
4.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해야 할 일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5.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획하는 시간 되도록

1.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Y국 선교소식

-Y국 한OO 김OO 선교사(선훈7기)-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Y국은 현재 코로나 환자 299명, 사망자는 6명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극장과 종교 시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4월에 유명한 캐나다. Y국 목사님이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했다가 본인은 물론 다수가 코로나에 걸려서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1.교회사역
저는 교회 개척과 학원문제를 두고 6-7월 두 달간 작정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목회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일 만에 마가복음 11장 어린나귀에 관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31살의 건강한 청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아직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인도에서 신대원을 마치고 국내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저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구했는데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임대로 교회를 시작하고 2~3년이 지난 후 성장하면 교회를 건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척 장소를 탐방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마케도냐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도 불러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2.기숙사 사역
할렐루야! 그토록 오기를 기다렸던 아이 2명이 코로나를 뚫고 드디어 양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지역은 인도와 가까운데 고등학교와 학원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진학을 위해 읍내로 나와야 하는데 가난한 이들에게 기숙사와 학원비는 큰 부담입니다. 더구나 시골에서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희들은 가난한 크리스천들을 돕고 아이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벌써 빨래하고 요리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을 보며 한국의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네요. 한번도 규칙 속에서 살아 본적이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규칙의 효용성을 알고 모두를 위해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두 달 늦은 8월에 아이들의 개학이 예정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한글학원사역
5월부터 코로나로 쉬었던 학원을 재 오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몇 신입생이 등록했지만 아직까지 5명 이상의 수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 마침 건물 임대기간도 거의 끝나 가고 있어 코로나 기간에 학원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학원홍보를 위해 도로가에 있는 건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데 값싸고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해 왔고 배우기를 원하는 재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직원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판단을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소식

은혜한인교회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

1. 이방인의 충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 (롬11:25 ~28)을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해
2. 온전한 성결, 전적인 헌신으로 순교적 선교 감당
3. 미전도 종족 지역 7,000개 센터 교회 세움 위해
4. 제자화, 교회개척, 토착화를 위해
5. 선교사 훈련원 & 신학교(19)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K국, J국(3), 대만, ㅇ국, I국, 캄보디아, T국, 케냐,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김광신 원로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건강 회복과 새 힘 주심
2. 성령충만, 권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한기홍 담임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100일 특새 말씀을 위해
2. 성령충만, 능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3. 영육간의 강건, 이 시대 영적 리더로서 사명 감당
4. 교계와 선교계를 잘 섬기는 사명 감당

선교사 방문현황

- 주경자
- 강숙진 (키르기즈스탄)
- 정소남, 미선 (러시아)
- 김봉년, 김미란 (첼랴빈스크)
- 한성우 (이르쿠츠크)
- 최정진 (알타이)
- 그레이스 김 (파나마)
- 박원근, 박윤숙 (케냐)
- 김교역, 주순 (우크라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N국 소식

-N국 남OO 선교사 (선훈2기)-

샬롬
언제나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N국은 국가 봉쇄령이 4차례 연장 되어 5월31일까지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unlock1.0 실행중입니다. 제한적으로 풀어진 봉쇄가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파른 코로나19 증가세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듯 합니다. 현지인들도 봉쇄기간이 길어져 그에 적응이 되었는지 이제는 집밖으로 나가기 싫다고도 합니다. 혹서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와중에도 더위를 피해갔는지 아니면 그동안 못만났던 가족들을 보러갔는지 예년 6월과 같이 아파트 주차장에는 차들이 줄었습니다. 봉쇄가 풀리자 각종 보도를 통하여소식을 접하여 아실텐데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분위기와 더위로 천으로도 입을 가리지 않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주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라며 지역과 동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2주격리 장소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코로나19환자가 3명이 나와 철저히 자가격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식으로 2명이 완치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생에 신경쓰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은 8월15일 이후 코노나 바이러스19 상황에 따라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9월에 열수도 있고 좀 더 닫을 수도 있습니다. 유아.유치반부터 2학년까지 4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어린이들이라 정부 지침에 민감합니다. 학생들중 일부가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주 노동자 가족들의 삶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 두분은 다행이도 남편이 있고 싱글 두분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 어렵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두가 함께하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공부소리가 들리는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없는 형편들이라 학교가 오픈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가 봉쇄 기간과 학교가 쉬는 이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느끼고 있는것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선교가 필요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협력하며 동역한다는 것이 머리와 계획이 아닌 실재적이고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 마을과 마을, 보이지 않는 담과 담 사이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이 언제 또다시 올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역지와 주거지를 달리하지 않던 선배 선교사님들의 삶과 지혜가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현지인들도 휴가를 가는 혹서기입니다. 10여일이 지나면 몬순기간이 시작될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교 주변 동네 사람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공부할수 있는 시간이 어서와 기쁨으로 만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날이 그날인 동네분들과 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소망되어 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한 일자리입니다. 다른 돌봄입니다.

O국 사랑의 손길

-O국 곽OO 김OO 선교사-

적은 기독교 인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교회를 세웠고, 가난한 이웃들을 전도하고 있는 사이O 목사의 최근 전도지

<자O목사의 쿤라 지역 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비가 와서 이웃집 처마 밑에서 드리는주일 학교>

탄자니아 선교소식

-탄자니아 송규영 오효숙 선교사 (선훈5기)-

< 잔지바르는 지금 >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건기철로 들어서면서 바람으로 흙먼지로 외출하여 돌아오면 목이 칼칼하고 모든 물건들 위에 희뿌연 먼지로 온통 뒤덮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적인 폐쇄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을 잃어 버리고, 학교사역과 성경대학 등 모든 사역이 중단된 채 몇 개월간 격리 되어 방콕하며 답답한 시간을 지내야 했지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로 인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들의 사랑이었음에 감사 드립니다.

< 학교 사역 >

관광수입으로 살아가는 이곳은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곳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6월부터 공항이 오픈 되었고 6월 29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를 개학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어 저희 학교도 문을 열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닫은 기간 동안 아이들을 마냥 집에서 놀게 둘 수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시도해 보았지만, 이곳의 열악한 환경으로 가정에 인터넷과 컴퓨터도 없고 전기가 들어오는 집도 몇 가정 안되다 보니,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서 차선의 방법으로 과목마다 1달 분의 문제를 만들어 복사하여 학교에 와서 학부모가 문제지를 가져가 집에서 자습으로 공부시키도록 했습니다.
6월 29일 정부에서 학교를 개학하라 했지만 코로나-19와 우기철, 라마단이 겹쳐지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육지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 학교를 열면 아이들이 반수도 안 돌아올 거라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 90%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와 함께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정부지시에 따라 학교를 개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사역을 하는 저희들은 학교에 모여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필요치 않았는데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씻기를 잘하도록 수도꼭지를 4개를 더 설치작업을 하였습니다. 학교가 문닫은 전반기 거의 6개월을 공부를 시키지 못한 채 이제 개학을 하고 나니 4학년과 6학년 정부 국가시험이 코앞에 있음을 실감합니다. 작년에는 10월 말에 시험을 보았는데, 올 2020년에는 10월에 대통령 투표가 있어 9월에 시험이 있을 것이란 정보가 있다 보니 3개월 공부하고 시험을 보아야 하는 아이들의 심적 부담이 크고 학교에서도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학교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코로나-19와 우기철, 라마단의 여파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학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사립학교 전체에게 별도 지원은 하나도 없이 코로나 기간 동안의 학비를 면제해 주라는 발표를 해서 우리학교도 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저희도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이지만 건물 렌트비와 선생님들의 봉급을 감당하기에 버거움이 있습니다.

< 성경대학 >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서 성경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중순에 개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부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한 생계와 공부를 겸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상황과 환경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 컴퓨터 교육 >

학교가 개학함에 따라 코로나-19 때문에 쉬고 있던 정부학교 5,6학년 컴퓨터 수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학년은 수업과목이 많다 보니 일주일에 2회 시키는데, 학생수가 한 반에 70명이 넘고, 집에 컴퓨터를 가진 학생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설치된 학교 컴퓨터실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것을 다 가르칠 수 없어 늘 아쉬운 마음입니다. 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도 염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웃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던 선교사님이 건강 때문에 한국에 가셔서 그곳 학교 교육까지 맡아서 추가로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건강하게 잘 견디며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